

# kiri Weekly

2013.3.4 제223호

## 이슈

가계부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포커스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 금융보험 해설

금융상품의 이해 (17): 부채담보부증권(CDO) (2)

## 글로벌 이슈

미국 자동 예산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 발동과 시사점  
높아지는 유로존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가계부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 요약

- 국내 가계부채 이슈는 가계부채 수준, 증가율, 대출자산의 질(Quality), 풍선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으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측면에서는 그 논의가 제한적이었음.
  - 가계부채 증가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었음.
  - 가계부채 수준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대한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어 왔으며, 신용카드대출 억제 등을 통해 풍선효과를 제한하려는 정책도 제시되었음.
  - 반면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보험계약대출의 특성상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실화의 영향은 은행권에 비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험권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관리가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로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
  - 약관대출이 상환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나 약관대출이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장기적 경영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고채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자산운용이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강화 전략은 향후 보험산업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필요
  
- 본고에서는 가계대출 부실과 풍선효과, 경기침체의 보험권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보험계약대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향분석은 기존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분석방법을 보험권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보험계약대출과 구분하여 분석

## 1. 검토 배경



### ■ 국내 가계부채 우려가 지속되며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 가계부채는 2012년 말 현재 959조 4,000억 원<sup>1)</sup>으로 증가폭은 2010년 말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국내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81%로 OECD 평균 73%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
-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 특히 인구고령화와 경제 여건 악화로 은퇴자들의 주택매도가 늘어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대출금 산정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하우스 푸어도 양산될 수 있음.

- 미국,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인구고령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sup>2)</sup>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음.
- 가계대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가계의 생활비가 부족해져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하우스 푸어가 늘어날 경우 실물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 가계대출 문제는 크게 가계의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험계약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해약률 상승과 이로 인한 장기적 경영기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음.

- 경기침체 지속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연체금액 증가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 또는 금융회사를 소유한 비금융기업들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전이될 수도 있음.
-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감소가 풍선효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경기침체 지속으로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우려

1)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됨. 예금은행 467조 2,700억 원(2012년 12월 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92조 5,900억 원(2012년 12월 말), 기타금융기관(보험, 연기금 등) 240조 7,200억 원(2012년 12월 말), 판매신용(신용카드 할부금 등) 58조 8,100억 원(2012년 12월 말)

2) 반면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벨기에·핀란드·그리스는 이와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했지만 주택 가격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저시경제여건 악화로 주택가격 급락 기대 형성 시 은퇴자들의 보유 주택매각이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함. 기획재정부(2012. 12. 3),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 특히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제조업체인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대주주에게 확산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자금지원 여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주주의 산업 경기가 좋지 않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가계대출 부실화와 풍선효과, 그리고 저성장-저금리가 보험권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보험계약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금융업권별 리스크 비교



### 가. 국내 가계부채의 추이

- 국내 가계부채는 2012년 말 현재 959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보험권 등 기타금융기관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난 특징이 있음.

〈표 1〉 권역별 가계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예금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sup>1)</sup>	기타 금융기관	보험권	가계대출	판매신용	가계부채
2009	409.5 (264.2)	140.3 (64.6)	184.5	66.1	734.3	41.7	776.0
2010	431.5 (284.5)	162.1 (73.1)	200.2	68.0	793.8	49.4	843.2
2011	455.9 (306.1)	183.7 (83.1)	217.5	74.7	857.1	54.8	911.9
2012	467.3 (316.9)	192.6 (85.4)	240.7	79.6	900.6	58.8	959.4

주: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2) ( )안은 주택담보대출.

자료: 한국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9년 324조 8,000억 원이었으나 2012년 433조 3,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예금은행 가계대출 수준에 이룸.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011년 5.6%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어 2012년 2.5% 증가하는데 그쳤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동기간 증가율은 각각 13.3%, 4.8%를 기록
  -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0년 8.5%였으나, 2012년 10.7%로 높아짐.

#### ■ 업권별 대출자산의 질적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3)</sup>

- 특히 은행과 신용카드업계에서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보험권의 다중채무자 대출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다중채무자는 대출 건수와 무관하게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다중채무자 대출로 정의
- 2012년 6월 말 1건 이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1,725만 명 중 다중채무자는 316만 명으로 18.3%에 해당하고, 2010, 2011년 중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다중채무자 증가폭이 두드러짐.
- 2012년 들어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이 대부분 전년 말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보험권은 타업권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다중채무자의 권역별 대출금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은행	카드 (카드대출)	캐피탈	보험	조합/새마을	저축은행	대부업
2008	15.1	3.6	23.2	10.7	14.1	-0.2	59.5
2009	5.7	-19.3	-3.9	-0.9	10.0	21.8	26.8
2010	5.3	20.4	19.7	8.2	16.1	-12.8	41.6
2011	4.0	-3.0	12.0	14.2	11.3	21.7	14.4
2012. 6	-1.8	-2.8	1.1	8.0	-0.4	-7.4	-1.1

주: 전년 말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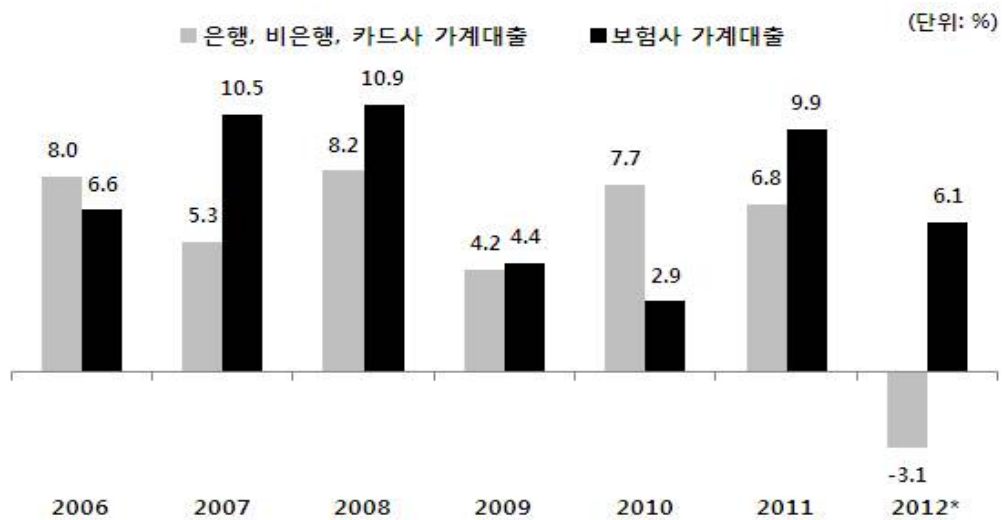
자료: NICE 신용평가 정보; 서정호 외(2012),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함.

3) 한국금융연구원(2012),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에서 인용함.

■ 업권별 대출자산 조정, 풍선효과와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권의 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은행, 비은행, 카드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2006년 8.0%에서 2007년 5.3%로 하락하면서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6.6%에서 10.5%로 높아졌음.
-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0년 비보험권 가계대출이 7.7%로 증가하였고 보험권 가계대출은 2.9%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후 2010년과 2011년 비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위축되면서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1년 3월 3.6%에서 2012년 3월 14.4%로 높아졌으나 이후 10%까지 다소 둔화
  - 특히 2012년 9월 이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업권별 대출증가율 추이



주: 1) 은행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은행가계대출은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임.  
 2) 2012년도 증가율은 2011년도 9월 말잔과 2012년도 9월 말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표 3〉 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1. 3	2011. 6	2011. 9	2011. 12	2012. 3	2012. 6	2012. 9	2012. 11
가계대출	63.0 (3.6)	63.8 (5.1)	66.8 (9.2)	68.9 (11.0)	72.1 (14.4)	72.9 (14.3)	73.9 (10.6)	75.1 (10.0)
보험계약대출	38.5 (6.4)	39.3 (6.8)	40.8 (9.4)	42.2 (10.8)	43.8 (13.8)	44.6 (13.5)	45.4 (11.3)	46.3 (11.0)
주택담보대출	19.5 (0.5)	19.4 (3.2)	20.7 (10.1)	21.2 (12.2)	21.9 (12.3)	21.9 (12.9)	22.1 (6.8)	22.3 (5.7)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나. 업권별 자산 부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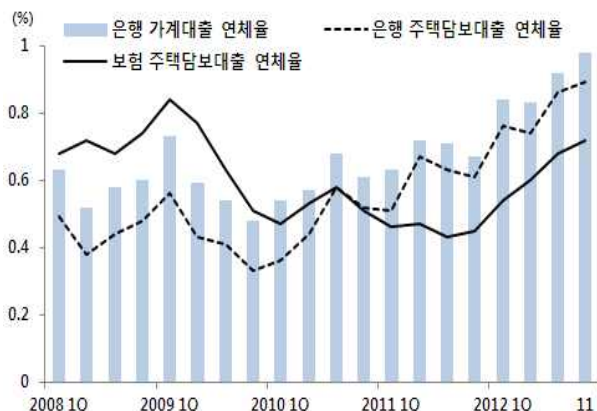
■ 국내 가계부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권의 경우 2010년 3월 0.47%에서 2012년 11월 0.72%로 상승.

-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11월 22조 3,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75조 1,000억 원의 30% 수준이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09조 9,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495조 5,000억 원의 63%를 차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2년 11월 0.89%로 2009년 12월 0.33%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2년 11월 0.72%로 2010년 3월 말 0.47%에 비해 0.25%p 상승하였음.

■ 보험권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계약대출의 연체율은 0.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11년 1분기 0.88%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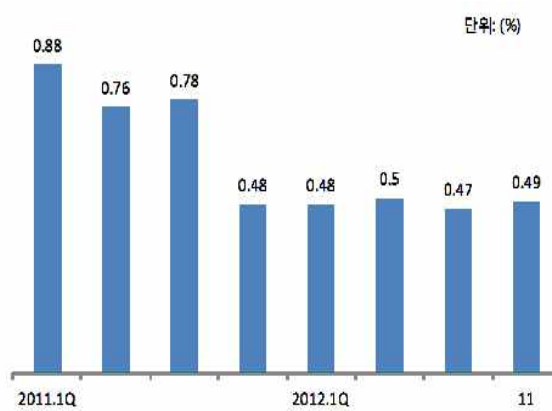
- 2010년 10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연체이율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림 2〉 은행과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림 3〉 보험계약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방법에 의하면 소득감소와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왔을 때, 은행의 가계대출 손실규모는 25조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sup>4)</sup>

- 한국신용평가는 2011 가계금융자산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조사대상가구의 금융부채에 대한 손실률을 추산하고 이를 실제 가계대출 규모에 적용하여 금융업종별 가계대출 손실규모를 계산하였음.
- 손실률은 부도율과 회수율을 이용해서 추산되었는데, 부도율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 두 가지 스트레스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음.
  - 부도율은 가계금융자산조사에서 분석된 가계의 신용등급에 자사의 부도율을 매칭한 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였음.
  - 기본안에서는 가계금융자산조사에서 분석된 부도율과 부동산가격을 가정
  - 스트레스 1 시나리오는 손실발생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 100%의 부도율과 부동산가액 68.1%를 가정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 1에 가계의 정상소득이 25% 하락하고 부동산가액이 수도권 20%, 비수도권 10% 하락한다고 가정하였음.<sup>5)</sup>
- 분석결과 기본안에서는 금융업권이 가계부채의 부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손실률이 5.5%까지 상승하고 신용카드사들의 손실률은 40.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손실규모는 25.1조 원,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손실규모는 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4) 한국신용평가의 가계부채 위험분석 방법(『금융기관 업종별 가계부채 위험분석』, 2012. 9)을 적용하였으며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5) 국내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2008년 2.8%, 2009년 2.0%, 2010년 1.8%, 2011년 6.4%, 2012년 -0.2%로 제한적이거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가정인 것으로 보임.

■ 보험권의 가계대출에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방법을 적용해보면 가장 비관적인 스트레스 시나리오 2의 경우 자본총계 대비 1.7%의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방법을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중평균 손실률을 가정<sup>6)</sup>하여 보험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해보면, 비관적일 경우 보험권의 손실은 대손충당금을 초과할 수 있음.
  - 보험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2년 11월 말 0.56%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98%의 60% 수준을 밑돌고 있어 은행의 손실률보다 낮을 수도 있음.
  - 그러나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보험권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손실률은 더 악화될 수도 있음.
-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손실률 7.1%를 가정할 경우 보험권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합계 28조 5,000억 원에 대해 1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대손충당금 7,200억 원을 초과하고 보험권 자본총계 72조 8,000억 원의 1.7%에 이를 것으로 분석
- 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손실률 1.2%를 가정할 경우 자본손실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표 4>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손실률에 따른 자본손실 추산

구분	가계대출 잔액 (A, 조 원)	손실률 (B, %)	손실규모 (C= A×B, 조 원)	총당금 (D, 조 원)	자본 감소규모 (E) <sup>3)</sup>	자본총계 (F, 조 원)	자본총계대비 자본감소비율 (= E/F, %)	가계대출잔액 1조 원 당 자본감소규모 (= E/A, 조 원)
은행	456.3 <sup>1)</sup>	0.8 (5.5)	3.7 (25.1)	20.8	- <sup>4)</sup> (4.3)	162.8 <sup>5)</sup>	- (2.6)	- (0.009)
신용카드	21.9 <sup>1)</sup>	8.6 (40.1)	1.9 (8.8)	1.2	0.7 (7.6)	19.5	3.5 (38.9)	0.031 0.346
보험	28.5 <sup>1)</sup>	1.2 <sup>2)</sup> 5.5 (7.1)	0.3 1.5 (1.9)	0.7	- 0.8 (1.2)	72.7	- 1.1 (1.7)	- 0.029 0.045

주: 1) 은행과 보험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2년 3분기 수치이며 은행은 예금은행들이고, 보험은 생·손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임.  
 2) 보험권의 손실률 1.2%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손실률의 가중평균이며, 여기서 가중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비중임.  
 3) 자본금 감소규모는 손실규모가 총당금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4) 손실규모가 총당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실을 총당금으로 보완할 수 있어 자본금 감소는 없음.  
 5) 은행은 자기자본임.  
 6) 괄호 안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스트레스2)에서의 수치임.

6) 은행권과 신용카드사의 손실률을 가중 평균한 이유는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대출고객의 신용도와 유사하나 소폭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평균 하였음.

■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해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은행권에 비해 최대 다섯 배까지 커질 수 있어 가계부실의 충격이 은행권에 비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7)</sup>

- 가계대출 1조 원 당 자본총계 감소액은 은행권 약 90억 원, 보험권 약 450억 원으로 나타남.
  - 가계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자본금 감소액을 계산한 것으로 각 업권별 가계대출의 한계비용으로 볼 수 있어, 보험권 가계대출의 자본비용이 은행권에 비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감독당국은 최근 들어 보험권의 대출 손실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음.

- 보험권의 대손충당금은 7,200억 원 수준으로 가계대출잔액 대비 2.52%이며 은행권의 4.56%보다 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 4월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치 이전 기준에 의해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정상여신(0.75%→1.00%), 요주의(5%→10%), 회수의문(50%→55%)로 상향되었음.
- 2012년 9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1.4%에서 2.8%로, 소매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3%에서 4%로 상향조정하여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 부과를 강화하였음.

### 3. 보험계약대출의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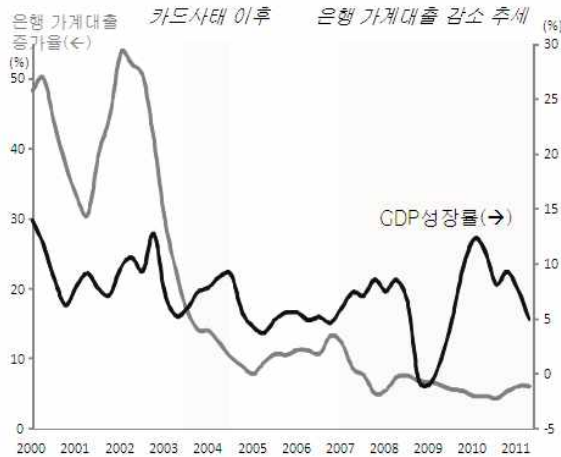


■ 보험계약대출은 타업권의 대출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은행 대출의 경기순환적 특징으로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개선될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은행의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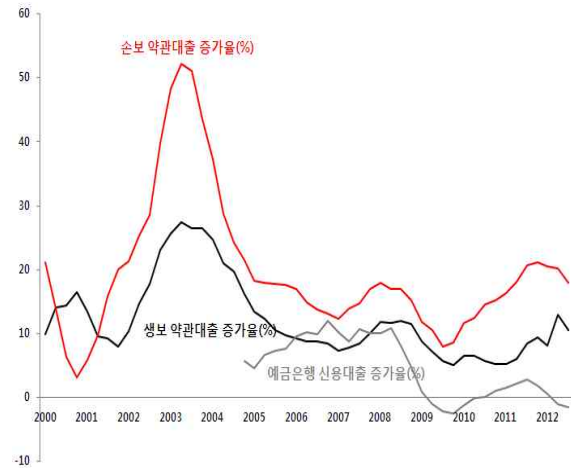
7) 2012년 9월 말 기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6%, 생명보험의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 비율은 0.88%로 전체 대출채권 중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비율로 보면 은행권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이나 가계대출 잔액 대비 손실가능 자본금 기준으로는 보험권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4〉 GDP 증가율과 은행대출금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림 5〉 은행의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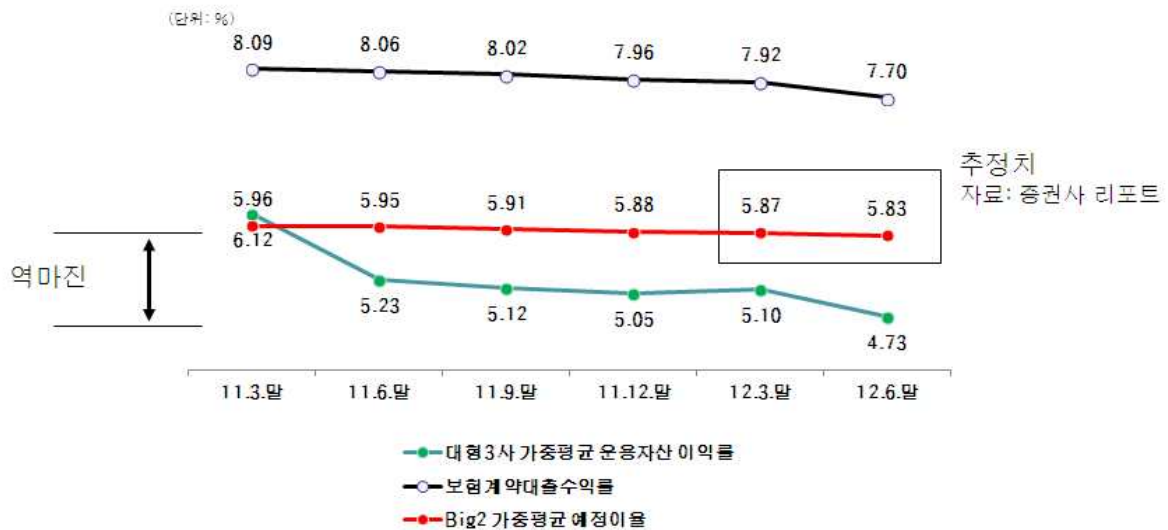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저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보험계약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비교

FY 2011 대출채권 운용이익률은 7.37%,  
가계대출 운용이익률 7.69%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각 증권사.

- 그러나 약관대출 증가율은 해약률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계속보험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약관대출 순환변동이 해약률 순환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약관대출 증가세가 추세보다 높아질 경우 해약률 증가세가 추세보다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가계소득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가계가 보험료와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그림 7〉 경기순환과 약관대출 증가율, 해약률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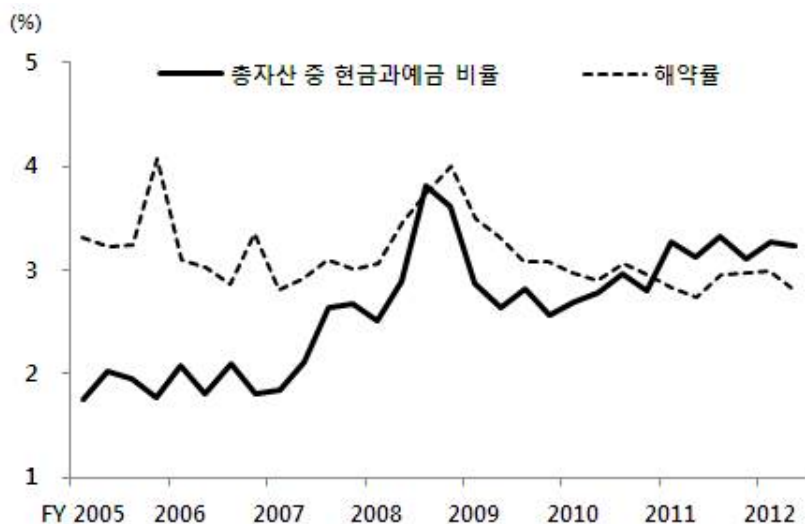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통계청.

- 해약률은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데,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해약률이 높아질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연금저축보험 해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악화가 지목되고 있음.
    - 경기악화로 인한 보험산업의 유동성 리스크는 외환위기 당시 경험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해약이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sup>8)</sup>에 빠질 수 있음.
    -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해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약관대출 없이 해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현금유입이 중단되어, 장기적인 현금흐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해약요구에 대응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운용자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8)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은 보험회사가 현재 혹은 미래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여부, 현금수요 충당을 위해 자산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각해야 하는 위험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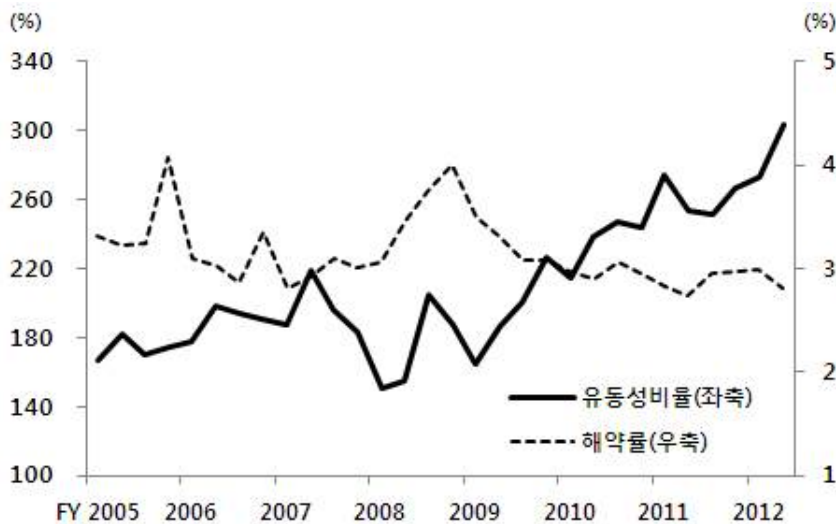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0년 6월까지 170%~208%로 유지되다가 2010년 9월 이후 200% 이상 유지되고 있음.
- 보험권 총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율도 해약률을 웃돌고 있어 보험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8〉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중 현금과예금 비율 및 해약률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그림 9〉 생명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과 해약률 추이



주: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유동성자산은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임.  
 평균지급보험금은 최직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임.  
 단,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 4.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보험산업의 자산 중 대출채권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나 타업권에 비해서 대출채권의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실의 영향

- 보험권의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계의 경상소득이 25%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수도권 20%, 비수도권 10%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손실규모는 1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모형에 가계부채 손실률 7.1%를 가정한 결과임.
  - 그러나 보험산업에서 대손충당금이 7,200억 원에 불과하여 약 1조 2,000억 원의 자본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4.5%인 반면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2.5%에 불과함.

- 보험권에 대한 가계부채 부실화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양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가계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가계대출 1조 원 당 자본 감소규모는 은행권이 90억 원 수준이나 보험권은 421억 원으로 나타났음.
- 보험권에 미치는 가계대출 부실의 단위당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자본에서는 가계대출의 질적 관리와 더불어 총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 보험계약대출의 영향

-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해약 증가, 약관대출 증가와 해약률 증가 등으로 보험산업의 해약률이 추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음.

- 경기악화 시 약관대출이 늘어나고 늘어난 약관대출은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
  - 경기악화로 인한 직접적인 해약과 약관대출을 통한 해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은행 등 타업권의 가계대출 감소가 보험계약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약관대출 증가와 해약 증가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환위기 당시 해약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던 경험

■ 보험권의 대출 중 기업대출의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보험권의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배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kiri**

〈표 5〉 보험회사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1. 3	2011. 6	2011. 9	2011. 12	2012. 3	2012. 6	2012. 9	2012. 11
기업대출 잔액	28.2 (30.9)	27.6 (30.2)	28.7 (30.1)	29.0 (29.6)	31.6 (30.5)	33.2 (31.3)	34.6 (31.9)	34.6 (31.5)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3.3	14.0	12.5	5.1	12.1	20.3	19.3	19.7
연체율	1.69	1.77	2.17	1.63	1.35	1.46	1.40	1.45

주: ( )는 보험회사 총 대출잔액 중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